



한여름의 시골길을 버스가 달리고 있었다.
먼지로 뒤덮인 버스는 화덕처럼 뜨거웠다.
한참 달리는데 가로수 그늘 밑에서 한 젊은 군인이 손을 들었다.
버스가 그 앞에 멈췄다.

군인은 커다란 배낭을 안고 버스 맨 앞좌석에 앉았다.
그런데 버스는 떠나지 않았다.
왜 안 떠나느냐고 승객들이 소리쳤다.

운전수는 "저어기" 하면서 눈으로 창 밖을 가리켰다.
승객들은 모두 운전수가 가리킨 곳을 바라보았다.

멀리서 젊은 여인이 열심히 논둑을 뛰어 오고 있었다.
버스를 향해 손짓까지 하는 품이 어지간히 급한 모양이었다.
승객들은 여인이 올 때까지 기다리기 위해
버스에서 내려 개울가로 가서 세수도 하고 바람을 쏘이기도 하였다.

얼마 후 여인이 도착했다. 그러나 여인은 버스에 타지 않았다.
운전수가 빨리 타라고 소리쳤다.

여인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맨 앞좌석에 앉은
젊은 군인에게로 가서 창 밖으로 내민 손을 잡고서
"몸 성히 잘 가이소." 라며 인사를 하는 것이었다.
젊은 군인도 "걱정 마래이." 하며 여인의 손을 아쉬운 듯 놓지 않았다.

이 광경을 보고 있던 승객들은 너나없이 한바탕 유쾌하게 웃었다.
즐겁고 흐뭇한 웃음이었다.

버스는 다시 먼지를 일으키며 여인을 뒤로 남겨둔 채 매미 울음소리가
울려 퍼지는 가로수 사이로 멀어져 갔다.

.....시골 버스처럼 안달복달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여유와 웃음이 그립습니다.
그리고 버스 안 가득한 인심까지....



◀그땐 그랬지 ▶ 미워도 다시한번

신영균, 문희, 국도극장, 가수 남진의 노래 '♪이 생
명 다 바쳐서 죽도록 사랑했고..' 이 모두가 어우러
져 한 시대를 풍미했던 영화였습니다. 그 시절엔 가수
의 노래가 히트되면 반드시 이렇게 영화로 만들었지
요. 어려운 시절이기에 노래처럼, 영화처럼 살고픈 마
음들이 더 간절했었나 봅니다.
돈이 없어 삼류 영화관의 동시상영을 보는 것으로도
행복해 하던 시절이 우리에게는 있었습니다. 화면에
비가 오던 그 낡은 영화관이 오늘은 간이역처럼 그립습
니다.

| | | |
|--|--|--|
| 교회목표 하나님만이 삶과 교회의 주인 | 예수님 안에 답이 있습니다(빌4:13) 갈보리교회 Calvary Presbyterian Church | 교회생활지침 누가 10:37 *자원함 -섬김과 봉사 *의명성 -명예 |
| 제9권 29호 | 기초성경공부이수, 정장으로 예배, 남 이야기 금지 | 2007년 7월 29일 |
| ☎ 369- 5077. Howe St. City(Ak Girls Grammar School Hall) | | www.calvary.org.nz |

◀하나님! 나의 하나님▶ 한 사람의 인생은 벤 존슨



그가 어떻게 죽었는가보다는
그가 어떻게 살았는가로,
그가 무엇을 얻었는가보다는
그가 무엇을 주었는가로
한 사람의 인생은 평가되나니.
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재는 것은
바로 이런 것,
그의 출생이 문제되는 게 아니다.

그의 신분이 어떠했는가 아니라
그가 사랑의 마음을 품고 있었는가로,
그리고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
얼마나 충실히 완수했는가로
한 사람의 인생은 평가되나니.
포근한 위로의 말로
늘 남의 눈물을 닦아 주고
웃음꽃을 선사하는 것,
이런 것이 인간의 아름다움이다.

그가 무슨 교회에 다녔는가보다는
그가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였는가로,
그가 어떤 교리를 가졌는가보다는
그가 진정 이웃의 진실한 벗이 되어 주었는가로
한 사람의 인생은 평가되나니.
그가 세상을 떠날 때
신문에 쓰이는 평가보다는
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를 애도하는지,
인생의 평가는 이런 것이다

◀말씀따라 행하기▶

우리는 아침에
침대에서 일어나는 것보다
부활 때에
무덤에서 일어나는 것을
더 분명하게 확신해야 한다

◀인품따라 행하기▶

남의 잘함만을 보고
박수를 쳐라.
그래야 복을 받는다.

주 일 예 배

(* 표에 일어서시기 어려운 분은 앉으셔서 드리시기 바랍니다)

함께하는 찬양

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|
| 신앙고백 Apostle's Creed | 사도신경 | 다 같이 |
| *찬송 Hymn | 9 장 | 다 같이 |
| *성서교독 Response Reading | 28(시편 127) | |
| 교회소식 Welcome & Announcements | | 인도자 |
| 찬송 Hymn | 439장 | 다 같이 |
| 기도 Pray | | 김반석 안수집사 |
|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| 욥기42:10-17 | 인도자 |
| 성가대 찬양 Choir | | 나무십자가 성가대 |
| 설교 Sermon | 인생은 곡선이다(2) | 김성국 목사 |
| 찬송 Hymn | 440장 | 다 같이 |
| 헌금기도 Offering Pray | | 인도자 |
| 응답송 Response Song | 여기에 모인 우리 | 다 같이 |
| 축도 Benediction | | 김성국 목사 |

성전건축헌금 지난주일: \$ 61,094 총액: \$ 379,723.70

◆8월 예배위원◆

◆8월의 교회력◆

| 일자 | 기도 | 응답송 | 안 내 | 주 일 | 모임 행사 |
|----|-----|-----|---------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
| 29 | 김반석 | | 본당:권사 | | |
| 5 | 노은숙 | | 현관(1)김교섭 이광희 | 5 | 3여 헌신예배(8) 구역예배(10) |
| 12 | 박일영 | | 현관(2)정덕수 박일영 | 12 | 광복기념주일 찬양간증집회(15) |
| 19 | 백제성 | | 새교우:이광희 이근평 | 19 | |
| 26 | 양경배 | | 윤주야 장유진 | 26 | 이삭줍기주일 남녀선교회월례회 |

| | |
|---|---|
| 『교회생활』 2007 신앙생활:하루에 7분기도하기 매일 가족위해 5분 매일 교회위해 1분 매일 남을 위해 1분 | 『교회등록』 *3주간 예배,친교참석 이후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십시오. *여러 교회를 다녀 보십시오. 그래야 신중하고 바른 판단이 됩니다 |
| 주일예배:아동,학생:오후 1시 수요일예배: 7:30 pm | 새벽기도회: 금 5:50 청년부:수요 7:00 pm |

- 교우소식
*진혜령 전도사. ☎021 0252 8000 <주소> Room252. Huia Apartment
- 모임 및 회의
(1)4여선교회 정기월례회 <예배 후 성가대 연습실>
(2)정기당회. 예배 후 . Dress Room
- 청년1,2부 연합수련회 <일시> 8월 3일(금)- 4일(토)
<장소> Peter Shell Youth Village. 1212 Whangaparaoa Rd. Whangaparaoa Rd.
*무엇을 걸쳐 입어도 아름답고 멋진 시절, 저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혼과 마음까지 아름답게 하려고 합니다.기도와 격려 부탁드립니다
- 8월헌신예배(예고):3여선교회
<일시> 8월 8일 수요일예배 <강사> Jeeny Quince 신부
- 항존직 기초 신앙생활공부: "Morning Alpha 성경공부"
*<일시> 8월 5일(주일)부터 매주 주일 2:40분-3:40분
*<장소> 성가대연습실
- "Morning Alpha 성경공부" <일시> 8월11일(토)부터 매주 토요일 7:30am
*<대상> 초신자, 성경공부를 한번도 하지 않은 성도
*<장소> 교회사무실(Khyber Pass Rd) <문의> 이태한 목사

◀착한 시인들▶ 새들의 무덤은 없다
우대식

숲속, 더 높은 산정 어디에서도
바람에 쓸린 뼈 한 조각 찾을 수 없다
세 들어 살던 하늘 한 조각 비워 두었을 뿐
이 지상에서 꿈꾸지 않았으므로
아프지 않은 죽음을 기억할 필요는 없다
바람보다 몸이 가벼워질 때
지워질 뿐
쓸쓸한 추락으로 땅 위에 몸을
박지 않는다

사람들은 산에서 내려와
화전으로 땅을 갈며 또 다시 그 위에
무덤을 만들지만,
새들의 무덤은 없다

돌아가시면 아버지의 시신을 의학 실험용으로 기증한다는 서류에 서명하고 돌아왔습니다. 본인의 동의를 구할 수 없을 만큼 정신을 많이 놓으셨기에 이제는 아버지의 보호자가 되어 서명하는 손이 떨렸습니다. 아버님도 이해하여 주실 겁니다. 하늘나라에만 소망 두자고 했던 설교를 그렇게 몸소 실천으로 장식하시게 돼서.....이 아들이 무덤보다 더 애뜻히 남을 방법으로 당신을 기억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. 돌아와서는 아내에게 '나도 아버지 처럼 똑같이 해주어야 한다'고 부탁했습니다.

저도 당신처럼 그렇게 삶과 죽음에 자유로운 새가 되고 싶습니다